

포스코, 금속노조 가입 막기 갖은 부당노동행위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기자회견·임금인상 미끼 노조탈퇴 종용, 불법파견 증거 인멸도

금속노조가 12월 2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부당노동행위, 무노조정책 즉각 폐기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탈퇴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포스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잇따르자 직접 노조파괴에 나섰다고 폭로했다. 포스코는 업체 대표를 만나 노조 가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금 추가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제시안을 들이밀고 현장을 분열시키려고 부추겼다.

포스코는 금속노조 가입과 근로자 자위 확인 소송 접수를 막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영구 노사 평화 다짐 협약서’를 받기도 했다. 협약서 내용은 ‘조합원들이 금속노조에 제출한 가입서와 불파소송 동의서를 즉시 회수 폐기하면, 2017년부터 3년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규직 대비 20% 더 해주겠다’ 라는 내용이다.

포스코는 조합원들의 반응이 미진하자 ‘금속노조를 탈퇴하면 노조가 없던 다른 사내하청업체 임금인상을 10% 보다 더 높은 16.6%로 올려주겠다’는 제안도 했다. 사용자가 차별대우를 미끼로 노조탈퇴를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포



스코는 노동부 점검에 대응해 사내하청 업체 사무실의 포스코 로고를 지우고, 작업표준서를 교체하는 등 불법파견을 감추는 작업을 꾸준히 벌였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포스코가 불법파견 증거를 숨기려고 업체에 적극적으로 지시했다. 금속노조 탈퇴하고 불파 소송을 취하려면 임금인상을 더 해주겠다고 한 녹취록도 확보하고 있다”라며 “포스코가 노동부 조사에 대비해 현장 대응하고, 작업장에서 포스코 표시를 자우리는 지시까지 내렸다. 포스코가 불법 파견임을 알고 인정한 증거다”라고 꼬집었다.

김태욱 법률원장은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의제상 사용주요, 노조법상 명백한 사용자다. 임금 인상 차별로 노동자들을 회유하려 한 사실도 포스코가 실제 고용주라는 증거다”라며 “포스코의 위법행위에 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다.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범죄행위를 멈추고 법원 판결을 인정해 직접 고용과 사내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양기창 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포스코는 한 일국교 정상화의 대가로 국민에게 돌아갈 청구권을 이용해 만든 기업이다. 국민인 노동자를 탄압하고 여전히 무노조 경영을 이어가고 있

다”라며 “금속노조는 포스코 현장에 노조가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식 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이 결집하려 하자 포스코가 직접 나섰다. 금속노조 가입하지 않으면 임금을 올려준다는 등 월급 차별로 노동자 사이를 농간하고”라며 “지회는 포스코의 무노조 원칙을 무너뜨리고 기필코 지금까지 행한 불법행위에 관해 사과받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에서 포스코의 해외공장 노동탄압도 규탄했다. 포스코는 포스코 터키법인의 포스코아산TS 철강산업에서 현지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자 80여 명을 부당 해고하고, 터키 금속노조의 교섭과 복직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지회 조합원들은 포스코가 국제기준을 어거하며 노조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 대공장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고민했습니다 ”

현대자동차지부 2017년 단체교섭 의견접근...불법파견 3,500명 특별고용 등 합의

현대자동차 노사가 12월 19일 울산공장 아 반데룸에서 2017년 39차 단체교섭에서 의견접 근했다. 지난 4월 20일 1차 상견례를 시작한지 8개월만이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허부영)는 국민여러분과 조합원동지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 임금성은 부족하지만, 대공장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고민했다 ’ 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지부와 조합원들을 가장 괴롭혀 왔던 자본과 언론의 거짓 선동은 ‘ 노동거족 ’ 이라는 꼬리표였다.

현대차 노사는 2017년 단체교섭에서 불법파 견 노동자 3,500여 명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 정규직한다고 합의했다. 더불어 현재 비정규직 촉탁직공정 2,055명을 2018년 말 70%, 2019년 말 50% 수준까지 줄이고 1,000여 공정을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기로 잠정합의했 다. 이와 함께 노사는 신규 채용시 경력자 우 대 조항을 통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출신 노

동자에게 정규직 입사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 신임금체계 논의 완전 폐 기, 지부 자체 임금체계와 수당 개선안으로 협 상 ▲ 임금삭감과 생산대수를 검증해 내년 1/4 분기까지 해당 조합원 총회로 8/8을 완성하는 주간연속고대 ▲ 필수 협정 근무자에 대한 C조 인원 편성과 임금지급 기준을 합의해 주 52시간제 준비와 장시간 노동 경쟁체제를 해 소하는 기반 마련 ▲ 손해배상 가압류(민사 5 건, 손해배상소송(10명) 가압류와 형사고소(4명) 철회 ▲ 타임오프관련 무급전임자 96명 인정 (단, 상급노동단체 임원과 금속노조 중앙임원 으로 피선된 경우 최대 4명 무급전임자 인정) ▲ 4차 산업혁명과 자동차산업발전에 따른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 사회공헌기금확대(3년 간 15억 원 →80억 원)와 사회공헌위원회 구성 을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임금성에 대해 기본급 58,000원(정기승급포함)인상, 성과급 300% +

300만원(중소기업 우수상품 구매포인트 20만포 인트 포함)으로 의견접근했다. 현대자동차지부 는 2017년 단체교섭 미타결쟁점사항이었던 정 년 연장과 정바-모버스 실질임금은 내년 상반기 까지 해결하고, 해고자 복직은 임기 내 전원 복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허부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단체 교섭 의견접근 뒤 “ 대공장 노동조합의 위기와 사회 고립을 극복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 대의 조합원 고용인정과 사회 책임을 더 강화 하고 사회 연대를 고민하는 현대자동차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라고 약속했다.

2017년 단체교섭 의견접근에 이르기까지 현 대자동차 노사는 수십 차례 실무교섭을 병행 한 39차례의 본교섭을 벌였고, 집행부 교체를 위한 임원선거도 치렀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22일 2017년 단체교 섭 의견접근안에 대해 전조합원 총회를 개최 한다.

“ 투기자본에 노동자 미래 맡길 수 없다 ”

SK엔카지회, SK 최태원 회장 규탄대회...밀살매각 규탄, 총고용 보장, 체불임금 지급 등 요구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SK엔카지회는 12 월 20일 서울 종로구 SK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 SK 최태원 회장 규탄 결의대 회 ’ 를 잇달아 열고 체불임금 지급과 밀 살매각 중단을 요구했다.

SK 최태원 회장은 지난 11월 17일 자신 이 대표이사로 있는 SK(주)엔카를 투기자 본인 한앤컴퍼니에 매각했다. 이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은 수백억 원의 이익을 남겼 다. 열악한 환경에서 회사를 업계 1위로 올려놓은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쫓길 상황 이다.

지회는 “ 투기자본인 한앤컴퍼니가 SK 엔카를 운영할 의사가 없다. 한앤컴퍼니가 다시 매각할 경우 노동자들은 모두 정리 해고 될 수 있다 ” 라고 주장한다. 이를 방 증하듯 한앤컴퍼니는 SK엔카지회의 교섭 요구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지회는 “ 2013년부터 성과에 따른 인센 티브 임금 체계를 도입한 회사는 이를 악 용해 노동자들에게 강제 조기 출근과 잔 업, 휴일노동을 시키면서 시간외 수당은 물론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 라고 폭로했다. 지회는 “ 인센티브 임금체계 도

입으로 SK엔카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줄었 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주말근무는 물론 연차 휴가를 내고 장거리 매입까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 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SK본사에 ▲매각 전일까지 양도 인과 조합간의 단체협약 체결 ▲노동조합, 단협 승계와 총고용 보장, 노동조건 승계, 향후 안정된 사업계획서 제출을 전제로 매각 ▲SK(주)엔카의 센터별, 지정별 분할 매각 금지 ▲체불임금 지급 ▲매각 이익 금 일부 환원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 달했다.